

나프타 가격 극한대립 표출

정부안 MOPS·MOPJ방식을 둘러싸고 유공 대 호유로 “양분”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큰 관심사인 나프타 가격결정 문제가 울들어 정유사와 NCC기업간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나프타 가격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MOPS와 MOPJ의 평균가격 방식이 유공을 정점으로 한 수용측과 호남정유를 정점으로 한 비수용측으로 나뉘어 극한 양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최근 정유사와 NCC간 잠정 합의된 내용을 보면, 유공의 경우 정부안인 MOPS와 MOPJ의 평균가격에 부대비용을 뺀 결재기간 45일 무이자선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인에너지도 이 같은 가격방식에 1달러를 올린 방법으로 한양화학과의 매듭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반해 호남정유는 정부측의 대안이 비용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계획한 MOPJ방식을 굳히는 등 내부적으로 대림산업과 MOPJ에 1.5% 부대비용, 45일 무이자 결재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기업과 NCC기업간 나프타 가격 잠정 합의안					
구 분	호남정유	현대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유 공
기 준 가 격	MOPJ	MOPS+	MOPS+M- MOPJ	MOPJ	MOPS+ MOPJ
부 대 비 용	1.5%	-	-	1.85%	-
결 재 기 간	45일	45일	45일	45일	45일

이밖에 쌍용은 MOPJ에 1.85%, 45일 무이자 결재방식으로, 현대정유는 MOPS·MOPJ에 45일 무이자 결재방식으로 각각 잠정 합의했으나 현재는 호유와 대림간의 결과를 주시하는 등 정유사측에 다소 유리한 MOPJ방식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우기 정부대안도 평균가격에 따른 손실분의 보전 계획만 발표했을 뿐 가격인하분에 대해 어떤 비율로 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선뜻 양측간 가격결정이 시원스럽지 못한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MOPS와 MOPJ의 평균가격으로 나프타 가격이 결정될 경우 유공은 나프타 생산능력 4만 7000톤, 1일 판매 3만 7000배럴(4000톤), 시장점유율 39%에 따른 인하 예상가격이 7.6달러에 그친 반면, 호유의 경우는 생산능력 4만 5000톤, 1일판매 4만 2000배럴(4540톤), 시장점유율 30%에따른 인하 예상가격이 8.80달러에 이르는 등 상대적인 손실이 경쟁사보다 높아 기존 계약방식의 고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장 점유율을 통한 정부의 보전금액이 유공이 1300만달러를 웃돌고 있는데 반해 호남정유는 1000만달러 정도로 보전차액이 유공은 +188만달러, 호유는 오히려 -442만달러로 각각 15억원의 흑자(유공)와 36억원의 적자(호유)를 나타내는 등 판매량과 종전가격(MOPJ+1.2%)에서 유리한 조건이었던 호유의 입장에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평균가격과 MOPJ가격과의 차이가 톤당 7달러 수준으로 큰폭의 비용 격차가 예상되는 등 평균가격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들어 다소 쉽게 타결될 것으로 예측됐던 나프타 가격결정이 2월을 넘기면서 기업별 방안들이 완전 백지화 상태에 이르는 등 정유사와 NCC기업간 재고누적으로 물량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